재가자들의 '수행경지' 인정… 책 · 서신으로 교류

<37> 대혜종고 선사 문하의 사대부 거사들

사대부들 선사와 교류는 명예 · 지위 확보하는 첩경
문자선의 폐해로 스승의 '벽암록' 불사른 일화 유명



그림 · 김흥인

송대는 유학 중심의 전형적인 관료사회지만, 대다수 관료 사대부가 불교에 귀의해 가히 거사불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 거사들은 대부분 선종, 특히 남종선(南宗禪)에 귀의했다. 송대불교가 남종선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을 주류로 이뤄졌던 까닭도 있지만, 유가의 이학(理學)에서 상당 부분 선학(禪學)의 심성론을 차용했고, 그 때문에 사대부들이 조사선에서 내재적 동질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사선에 귀의한 거사들은 선학을 이해하고, 다시 그들의 이학 이론에 삼투(滲透)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순환고리를 형성했다. 당시 승가에서는 앞다퉈 사대부들과 교류를 원했는데,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바로 선사의 명예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대의 주류가 사대부였기 때문에 전체 민중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교화는 바로 사대부를 통하는 것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선사들의 사대부들에 대한 교화는 필연적으로 유학과의 융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문(詩文)에 능한 사대부들과의 교류로 인해 선학의 성격에 변화가 초래됐다. 본래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음[不立文字]'에서 출발했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사대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안(公案)'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최초로 주석을 달았던 이는 바로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로 <송고백칙(頌古百則)>이다. 이후 천동정각(天童正覺), 투자의청(投子義靑), 단하자순(丹霞子淳), 설두중현(雪竇重顯) 등의 네 선사가 모두 송고(頌古)를 내고 있어 이들을 '선종송고사가(禪宗頌古四家)'라고 부른다. 특히 대혜종고 선사의 스승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는 <벽암록(碧岩錄)>과 <격절록(擊節錄)> 2권에서 <벽암록>에는 <송고백칙>에 '평창(評唱;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다. <격절록>은 바로 <염고백칙(拈古百則)>에 '격절(擊節)'을 붙인 것이다. 두 가지는 모두 설두의 '송고(評頌을 더하는 것)'와 '염고(古則을 골라내는 것)'에 대한 주석이다. <벽암록>은 앞에 '수시(垂示; 總綱)'를 더하고, 송(頌) 가운데 '착어(着語; 夾註)'를 붙이는 동시에 다시 '평창'을 가하여 공안을 더욱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작한 이러한 작업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차 사대부들의 '문자'에 의한 희롱거리로 전락되는 폐해가 출현하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불립문자'로 출발한 선종은 점차로 '불리문자(不離文字)'의 이른바 '문자선(文字禪)'으로 흐르는 경향을 띄게 됐다. 여기에 장상영(張商英) 거사의 <호법론>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불교계는 사원경제의 비대로 인한 상당한 문제를 노정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 선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성적 자정(自淨)의 노력이 나타났다. 바로 대혜종고 선사의 간화선(看話禪)과 굉지정각(宏智正覺) 선사의 묵조선(默照禪)이다. 흔히 중국학계에서는 묵조선을 초기의 달마선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입장으로, 간화선은 바로 육조 혜능 선사의 조사선을 회복하자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마치 석존의 경전에 주석을 행한 부파불교의 폐해를 석존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세운 대승불교 운동과 유사한 측면으로 파악한 것과 같다. 실제적으로 간화선과 묵조선의 사상적인 측면을 세밀히 고찰한다면 상당한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대혜 선사와 굉지 선사는 개인적으로 절친했고, 또한 굉지 선사가 임종 전에 대혜 선사에게 후사를 부탁할 정도였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대혜 선사는 묵조선에 대해서 "근래 몇 년 동안, 하나의 삿된 스승이 있어 묵조선을 설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를, 12시(時) 가운데 모든 일에 상관하지 말고 쉬고 비우라고 하며, 소리도 짓지 말라고 한다…, 가끔 사대부가 총명함과 지혜 있음에 이끌려 말이 번다한 것을 싫어해, 잠시 삿된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 고요히 앉아 도리어 힘이 덜 드는 것을 보고, 바로 옳다고 하여 다시 미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묵묵함을 궁극의 법칙으로 삼는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6), "달마의 9년 공이 말에 떨어지니, 당시에 그 허물을 살피지 않음이 애석하도다. 지금에 이르러 묵조의 무리는 귀신굴에서 오랜 세월 헛되이 앉았구나"(<오등회원> 권19) 등으로 철저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혜 선사는 문자선의 폐해로 인해 스승인 극근 선사의 <벽암록>을 불사른 일화로 유명하다. 송대의 정선(淨善)이 다시 편집한 <선림보훈(禪林寶訓)> 권4에는 "천희(天禧) 년간에 설두 선사가 변설과 박학의 재주로써 뜻을 미화시켜 달라지게 하고, 새로운 기교를 구하여 학인들을 농락하니, 학풍이 이로 말미암아 일변됐다. 체선(逮宣) 년간에 원오 선사가 자기의 뜻을 붙여 그와 달리해 <벽암록>이라 했다…. 소흥(紹興) 초에 대혜 선사가 민강에 가서 학인들이 그에 끄달려 돌이키지 않고 나날이 심하게 빠져들어 폐단을 이루는 것을 보고, 곧 <벽암록>을 불사르고 그 설을 금지시켰다"고 그 일을 기록했다.

대혜 선사는 기본적으로 "물을 긷고, 땔감을 하는 것도 모두 신통묘용(神通妙用)"이라는 조사선의 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쁠 때나 화날 때, 고요한 곳이나 더러운 곳, 처자가 함께 있는 곳과 주객이 서로 술 마시는 곳, 사무보고 가사 돌보는 곳, 혼인하는 곳 모두 제일 좋은 공부하는 곳이며 살펴 점검하는 시절"(<지월록>권31)이라고 해 세속사를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사는 "크게 한번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유학이고, 승(僧)이 곧 속(俗)이요,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요, 성이 곧 범이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8)라며 불교와 유학의 차별이 없음을 제창했다. 심지어 "양문공(楊文公; 楊億), 이문화(李文和; 李遵勖), 장무진(張無盡; 張商英) 세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니, 그 힘이 출가인의 이십 배나 수승함이다. 무슨 까닭인가? 우리 출가인은 바깥 형상으로부터 공부하여 들어가고, 사대부는 속마음으로부터 공부하여 나온다. 바깥으로부터 공부하여 들어가는 것은 그 힘이 약하고, 속마음으로부터 공부하여 나옴은 그 힘이 강하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1)고 해 오히려 재가수행이 출가수행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혜 선사의 사상 때문에 선사의 문하에는 헤아릴 수 이 많은 거사들이 집단을 이뤘다. 선사의 <대혜보각선사어록> 30권은 대체적으로 사대부들을 위한 참선의 평론과 지도를 내용으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의 9권은 선사가 여러 사찰에서의 설법을 담았고, 10~12권은 선사의 시와 게송이며, 13~18권은 '보설(普說)'로서 대부분 사대부들의 청을 받아 설한 것이고, 19~24권은 '법어'로서 모두 사대부를 위해 '기연어구(機緣語句)'를 개시(開示)한 것이며, 25~30권은 '서신(書信)'으로 역시 대부분 사대부를 위해 쓴 것들이다. 이로부터 선사가 사대부 거사들을 얼마나 중시했고, 또한 얼마만큼이나 열성적으로 지도했는가가 엿보인다.

<대혜보각선사연보(大慧寶覺禪師年譜)>에 따르면, 선사의 사법제자 가운데 승려는 84인이고, 선사를 따라 참선한 승려와 거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하며, 친히 계증(契證)한 사대부로 이병, 증개, 장구성 등 수십 명의 사대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관직은 재상(宰相)으로부터 참정(參政), 추밀(樞密) 등 최상층의 관료와 조정대신으로부터 지방관료 및 일반 사대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로부터 본다면, 대혜 선사의 간화선 건립은 선승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대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융의 <총림성사>에서는 대혜 선사 문하에 셀 수 없는 사대부 거사들이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구성, 이병, 여본중등 세 거사라고 말했다. 이어 <총림성사>는 "세 거사는 모두 입실(入室)을 허락한 방외(方外)의 도우(道友)였다"라고 표현했다. 이 가운데 선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는 바로 장구성(1092-1159) 거사이다. 선사가 소흥(紹興) 7년(1137) 경산(徑山) 능인사(能仁寺)에 머물 때, 장구성 거사가 참알해 인연이 됐다. 당시 여진족의 금(金)나라가 침공해오자 장구성 거사는 항전을 주장했지만, 당시 대권을 장악한 진회(秦檜)에 의해 함께 모함을 받아 소흥 11년(1141) 선사는 도첩을 빼앗기고 형주(衡州)로 귀양을 갔으며, 다시 소흥 20년에 매주(梅州)로 옮겨졌다. 장구성 거사 역시 남안(南安)으로 귀양 가 스스로 '횡포(橫浦)거사'라는 자호를 지었다. 소흥 26년(1156) 진회가 죽자 선사와 거사는 모두 복권되어 선사는 다시 도첩을 받아 경산에 머물고, 장구성 거사는 지온주(知溫州)의 관직을 받았다. 대혜 선사 문하의 방대한 거사집단은 선사의 승속을 초탈한 사상과 뛰어난 현실감각 등에 기인한다. 특히 선사는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의심과 늘 극명하게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간화선을 제창해 당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애쓴 점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뛰어난 선사의 지도 아래 거사들의 집단이 형성돼 활동함도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면모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3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모서면 소재지
● 대지 240 평, 밭 540평
● 특징: 석조약사여래좌상
● 가액 : 9,000만원
010-8959-082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 2층 약 40평
● 모든 시설 완비
● 삼존불 인등, 소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551-171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우문면
● 부지(새필지) : 700평
● 몽땅 5천만원
●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8-507-2752

촌 집 안 내
(쉼터로쓰실분)
● 위치 : 경남 창녕
● 총 74평
● 부엌1, 방3, 거실, 마당, 창고
● 요사채 30평(슬라브 건물)
● 가액 : 3000만원 절충가능
010-3885-3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 23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6-557-2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 찰 안 내
고급단독주택 · 비구니스님 · 법사님 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가족에게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입구
● 단독주택, 땅 건물 반듯한 남향,
● 대지 50평
● 특징: 마당에 나무 꽃, 주위 아파트 빌라 조용하고 ,교통 편리한 집 앞 4M 도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203-1165

고급단독주택2동
사찰(급)안내
● 위치 : 청구 상당구
● 1층 단독2동, 요사채 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 선방, 주방, 큰거실, 화장실 및 욕실
● 법당 지은 지 5년 법당 22평, 선방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 법당삼존불, 지장탱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 심야전기 최신 ● 대지 62평
● 가액: 3억1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5883-225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땁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단층 슬라브 60평 원목 실내시설(2층 증축가능)태양열 설치
● 법당: 16평 독립채(삼존불)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